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민족분산 또는 집단이주를 뜻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는 원래 BC 6세기 유다왕국이 망하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용되었다. 역사에서 패전 국민이 승전국의 노예로 전락한 예가 수없이 많을 테지만 유독 2600년 전 바빌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유대인들을 지칭했던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로 집단이주하여 사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진화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빌론의 유대인들은 현지에서 동화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번성했고, 훗날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국력의 외연

유엔 인구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2억 명이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75개 국가에 720만의 해외동포가 있다. 물론 이 통계에는 이주 1세대의 후손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국내인구(남북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우리 동포가 전 세계 5대양6대주에 퍼져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한민족은 중국인, 유대인 못지않은 세계적인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각지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이 시대별로 다르고 현지 문화와 사정도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묶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같은 핏줄의 한민족이기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재외동포들은 어느 곳에서도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현지 다른 이민사회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둘째로 한민족 특유의 교육열과 우수함으로 다음 세대의 현지 주류사회 진출률이 다른 소수민족보다 높다. 셋째로 강한 뿌리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팅턴(S. Huntington)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념의 대립이 끝나면서 문화, 민족의 개념이 중요시되는 시

대 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990년대 말 까지만 하여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현지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현지화정책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재외동포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우리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현저히 바뀌고 있다. 세계화 진행으로 국경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민족 간 연대는 강화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민족네트워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이스라엘, 인도, 이태리, 네팔란드 등 많은 나라들도 해외 거주 및 이주자들을 자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의 급부상이 4000여만 명이 넘는 화교경제권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중국 방문 시 현지 동포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 정부는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국가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주요한 요소이듯이 해외에서 교육받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익힌 글로벌 창의 인재들이 우리 경제에 접목된다면 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수천 명이 넘는 세계 곳곳의 한상(韓商)들이 수출입, 투자, 합작, 청년 인력의 해외취업 등 국가의 경제영토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 또한 미국 의회의 일본 위안부 강제동원 비난 결의안 통과에 재미 한인단체의 막후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외교적 지원은 한반도 안정과 미래 남북 통일과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민족적 뿌리만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간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계 각지의 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한민족공동체가 건설되고,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재외국민용 별도의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고, 동포재단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들과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력의 외연 그 끝에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음을 잊지 말자.

社說

광주공항 활성화 '저가항공'에서 찾아야

광주~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이용 승객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운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수익성이 낮아 운항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지역민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5대 저비용항공사와 운항하고 있지만 유독 광주를 오가는 항공사는 단 1개사도 없다. 이들 항공사는 김포와 부산, 청주, 군산공항 등지에서 국내의 노선에 취항 중이다.

저비용항공사의 이용객은 해마다 크게 늘면서 국내선 분담률이 2008년 9.7%에서 2009년 27.4%, 2010년 34.7%, 2011년 40.5%, 2012년에는 43.0%까지 뛰어올랐다. 군산공항은 군산~제주 노선 운항으로 광주공항 이용객을 잠식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의 가장 큰 무기는 대한

항공과 아시아나에 비해 20~30%가량 요금이 저렴하다는 데 있다. 현재 김포~제주간 저비용항공사의 평일 왕복 요금은 17만 원선으로, 광주~제주간 대한항공 등의 13만 원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김포~제주간 운항 거리가 광주~제주의 3배 가까이 길다는 점을 감안할 때 30%가량 싸다고 할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광주공항 유치에 손실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민의 여행 편의와 광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비용항공사의 유치는 필수다.

광주공항은 2015년 KTX 호남선 복선화가 이뤄지면 광주~김포간 승객이 크게 잠식당하는 위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시는 어떤 식이든 저비용항공사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제 광주공항 존치의 유일한 대안이다.

영광 명예 먹칠한 중국산 짝퉁굴비 판매

중국산 냉동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킨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영광굴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렇다간 지역 최고 특산품의 명예 실추는 물론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다. 더욱이 영광굴비 명품화를 내걸고 생산자업체들이 결성한 '특품사업단' 회원조차 수년간 사기판매를 했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목포해경은 지난 2일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가공해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영광 A굴비 수산 대표 문모(39)씨를 특정경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한 이모(27)씨 등 2명을 입건했다. 또, 중국산 조기를 공급한 수입수산물 유통업자 등 3명을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투씨 등으로 사들여 영광굴비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한 뒤 중간 판매업자를 통해 경기·인천·부산 등지 대형마트와 동네 중소형 마트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 등은 원산지 둔갑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자포기래를 했으며, 특품사업단에 회원 가입을 한 뒤 회원임을 알 수 있는 포장용 박스를 자체 제작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로 때돈을 벌어보겠다는 야박한 심보가 양심적인 판매업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영광굴비에 대한 신뢰를 일순간에 짓밟았다. 지역의 명예에 역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한번 금간 명성은 쉽게 되찾기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한다. 특품화사업단은 면피용 단기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회원 관리 및 인증 체계를 대수술, 원천적으로 짝퉁굴비가 나오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영광군도 팔짱만 끼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굴비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근절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고

공부와 놀이의 조화

놀 때 가장 인간답다고 했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를 마치고 나면 보충수업이나 자율 학습에 얽매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장기에 있는 인간으로서 놀이 욕구가 가장 강할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공부만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보충수업이나 자율 학습에 얽매어 밤늦게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있으면 놀이줄 친구도 없다. 친구들은 대부분 학원에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50~60년 대도시화가 덜 되었을 때 학원에 별로 없었고 심야 학습도 없어서 청소년들은 가사 노동을 돕거나, 일이 없을 때는 친구들과 모여 재미 있는 놀이도 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즐겁게 놀았다.

이 과정에서 실생활의 어려움도 터득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파악하는 능력도 키우고, 자연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명체의 본질을 파악하기도 했다. 또 자연 속에서 생명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명의 역할을 느끼기도 하였다. 즉 놀이의 여유를 거짐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와 창의성, 자연에 대한 탐구심 등 많은 잠재적인 능력이 발달하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건강한 감정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을 아이들은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로 공부만 하니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놀이 욕구를 발산시키지 못하여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가출, 자살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혼자서 몰래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기도 한다.

OECD 국가들의 학력 테스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이는 많은 공부시간을 투입하여 이룩한 결과로서 훨씬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핀란드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놀이 못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는 바보가 된다.'는 말을 상기하고 싶다. 잘 놀 수 있게 하고 잘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회상하면서 자기 성장은 작지 않았던 공부를 강요했던 학교 생활에 대해 아주 안 좋은 감정을 표적했다. 그는 공부하지 않는다고 교장으로로부터 혹독

한 매질을 당한 후 교장의 모자를 지근지근 밟고 다니다가 또다시 처벌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육사 입학 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우리의 학교는 진취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잘 교육시킬 학교들이 있는가? 지적체를 고루 발달시킬 균형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가? 혹시 타고난 기상을 꺾어버리고 문약한 점수기계로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다. 무소는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는 최고의 수단임을 실감했다. 우리 학생들을 자연에서 심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각종 이상행동들의 행태는 감소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리려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욕심을 재고해야 한다. 이제 학생들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는 여러 교육적 부작용을 치유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학생들의 놀이 욕구와 여가 욕구 등 인간적인 욕구도 존중하여 생명체로서의 희열을 느끼게 하면서 진정한 공부의 즐거움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의료칼럼

안전한 시력교정 '안내렌즈삽입술'

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잔여 각막 두께를 320마이크론 이상 충분히 남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고도근시 환자에게는 라식보다는 안내렌즈삽입술이 안전하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방법이 안내렌즈 삽입술(Implantable Contact Lens·ICL)로, 초고도 근시를 위한 차세대 시력교정 수술이다.

각막을 보존하면서 렌즈를 이식하는 안내렌즈 삽입술은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력교정이 가능하고, 초고도근시 및 각막두께가 얇아서 라식이 불가능했던 사람도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 후 2~3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교정된 시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빠르다. 라식·라섹과 달리 각막을 절개하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삽입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이 더 빠진 경우 렌즈교체가 가능하다. 또 필요하면 제

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시술이 가능하다.

안내렌즈 삽입술로도 교정이 힘든 경우는 알티산렌즈(Artisan Lens)와 알티플렉스렌즈(Artiflex Lens) 등의 수술법이 있다. 알티산렌즈는 유수정체 인공삽입렌즈의 한 종류로 바닷가재의 집게 발 모양에서 렌즈의 디자인을 착안한 것으로, 우리 눈에서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에 안정적으로 렌즈를 고정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법이다. 알티산은 각막과 수정체 중간에 있는 홍채 위에 고정돼 각막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각막 후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다.

알티플렉스렌즈는 알티산렌즈와 기능은 동일하지만 접을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알티산렌즈보다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이 가능한 렌즈이다. '소절개용 홍채고정 안내렌즈'로서 알티산렌즈와 같은 원리의 홍채고정안내렌즈로 기존 알티산렌즈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접어서 삽입이 가능하다. 이 때

문에 3.2mm의 소절개를 통한 수술로 인해 수술시간의 단축 및 빠른 회복, 난시유발이 적어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알티플렉스렌즈는 난시교정용 제품도 출시돼 시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해 영구적으로 시력교정을 하는 고도의 신기술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시력교정술 가운데 초고도근시의 경우 가장 우수한 시력회복을 제공하는 차세대 시력교정술로 정의할 수 있다.

차세대 시력교정 기술인만큼 수술은 라식, 라섹과 달리 숙련된 안과 전문의뿐만이 시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ICL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알티산 또는 알티플렉스 안내렌즈 삽입술은 렌즈를 홍채에 고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백내장, 녹내장의 합병증은 거의 없으나 홍채 앞에 고정되는 전방 렌즈이기 때문에 각막내피 세포에 대한 정기검진이 필수적이다.

**無 等 鼓**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최근 출범했다. KONEX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기업에 주식시장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시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을 일컫는다.

코넥스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정지문인은 상장 예비기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전문투자자 대상 주식 판매 주선 등을 관할하고 상장 이후에는 공시·신고 대리 업무,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출 등을 하게 된다.

지난 2000년에 코넥스와 비슷한 취지의 제3시장이 설립됐고, 2005년 '프리보드'로 재출범하기도 했지만 장외시장으로서 투자자가 벤처기업을 고르기 힘들고, 투자금 유입이 되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코넥스 개장 이틀만에 8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넥스가 과거 제3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장이 우수 중소기업 발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코넥스를 통한 유망 중소기업이 성공을 거둬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국경제의 보릿밭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코넥스**

장마철 내 마음속 잡초는 없는지 살펴내보자

잠시 추추했던 장마가 다시 하늘 위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와 관련된 작은 이야기를 할까한다.

밭일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비를 머금어 한껏

더 싱싱해진 농작물 옆에는 이름 모를 풀, 잡초도 함께 자라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잡초를 매주지 않고 그냥 둔다면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 잡초가 농작물에 가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잡작 자라야할 농작물은 자라지 않고 잡초만 속속 크게 된다. 이것이 장마가 지나

오려 농작물에 물을 공급해주듯 더 좋

은 나를 위한 훌륭한 밭관이 되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장마가 지나갔다손 싶으면, 한번쯤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라. 내 마음속에 작은 잡초들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뽑아주는 것도 좋고, 내 마음의 밭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당신의 나아가길 데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진호·광주시 남구 병림동

<b>光 卍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培樂</b> 편집국장 <b>奇賢鎔</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 F A X 222-8005 > 광고매케팅국 227-9600 < F A X 227-9500 > D I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0195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